



2012년 2월 3일(금) 오후 12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윤상흠 과장(2110-4829), 임형진 사무관(2110-5312)

- 20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이어 -
“2020년까지 무역 2조달러시대 연다”

- ▶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, 무역확대와 흑자 기조 유지
- ▶ 제품, 시장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무역패러다임 전환

- 2.3(금), 대통령 주재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-

-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2월 3일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「'12년 무역진흥 대책 및 무역 2조달러 도약전략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함
- 금번 도약전략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이후, 어디로 어떻게 나아 가야하는 지에 대한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
- 먼저 금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여건과 관련하여,
 - 지난 1월 무역수지가 2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선박 수출 부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,
 - 상반기까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나,
 - 하반기에는 유로존 위기 진정, 신흥국의 내수 확대, FTA 효과 등이 본격화되어 수출입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
- 자동차(완성차 및 부품), 일반기계, 석유화학 등은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어 갈 것이나, 선박·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이 감소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실물경제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함

* '11.8월 제97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이후 일일동향점검반 운영중

* 월·분기별 민관합동으로 수출입동향점검회의 개최

□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역흑자와 무역규모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FTA 효과 조기화, 신흥시장 공략 등을 추진하고,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 시행할 계획임

① 미국·EU 등과의 FTA 발효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증대의 견인차로서 활용

* 12.2월중 무역협회내 민관합동 「FTA무역종합지원센터」 출범

- 자동차부품, 전기전자, 섬유 등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

* 전시회(CES, Texworld 등) 참여 지원, 高부가가치·高관세 품목 마케팅

* FTA를 활용한 대규모 무역상담회 'FTA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'(2.14일)

- 현재 한-EU FTA 정보를 제공 중인 통합무역정보시스템(Trade-Navi)을 한-미 FTA 정보서비스까지 확대 예정

* '11년 EU 정보 구축 완료, '12년 美(2월중)·인도·아세안 등으로 확대 예정

②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, 해외마케팅 등 지원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

-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금년 무역보험의 60%를 집행

*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규모(억불) : ('11) 1,232 → ('12) 1,345(상반기 60%)

- 무역관의 신흥시장 배치(5개), 국내외 전시회 개최 등도 상반기에 집중하고, 해외전시회 지원기관간 상호협력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

- * (상반기) 인도, 브라질, 인니, 카타르, 모잠비크, (하반기) DR콩고, 벨라루스, 파라과이
- * '12년 전시회 참여지원(상반기/연간) : (해외) 62/100, (국내) 33/46
- * 해외전시회 개선방안 확정('12.1월),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운영(2,4분기)

③ 무보·수은 등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경색에 대비하여 무역금융 집중 지원

- '12년 무역보험은 197조원('11년 190조원 대비 3.7% ↑), 수은의 총수출 금융은 70조원('11년 67조원 대비 4% ↑) 지원
- * 상반기 무역보험 지원목표 : ('11.상) 58% → ('12.상) 60% 이상
- * (무보) 중기 무역보험 직접지원(조원) : ('11) 19 → ('12) 23.5(상반기 60%)
- * (수은) 중기 여신규모(조원) : ('11) 14 → ('12) 15(상반기 60%)

④ 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증가가 높은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우대와 대중소 해외 동반진출 본격 추진

- * (무보) 전년대비 10~20% 고용 증가기업에 보험료 10~20% 할인 시한 연장('11년→'12년)
- * (수은) 대출금리 0.5~0.7%p 차감, 대출한도 확대(50%→80%),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
- * '12년 상반기 '제2차 동반진출 포럼'을 개최하여 동반진출 성과점검과 공감대 확대

□ 또한 '20년까지 무역 1조달러를 넘어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,

- 정부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무역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임 (**별첨 : 무역 2조달러 달성전략**)
- (수출품목 다양화) 농식품, 문화콘텐츠, 바이오헬스·나노·로봇 등 융합신산업,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미래 수출동력 창출
- (중소기업 글로벌화)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- (중간재 수출확대) 글로벌 가치사슬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재·부품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배양

- (주력품목 입지강화) 미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, 자동차, IT 등 업종별 주력산업의 고도화
- (전략적 해외시장경영) 포괄적 산업협력으로 'UAE' 원전수주와 같은 성공사례 창출, FTA 체결과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
- (무역인프라 선진화) 무역금융 역량 확충,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, 무역전시의 허브 구축, One-Stop Smart 전자무역서비스 등

< 무역 2조달러 추진전략 >

해야할 일		주요전략
제품·기술	수출품목 다양화	• 미래 수출산업 창출 * 농식품, 콘텐츠, 융합신산업, SW, 그린에너지
	중소기업 글로벌화	•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	중간재 수출 확대	• 소재·부품 글로벌 역량 배양
	주력품목 입지 강화	• 주력수출산업 고도화
시장	전략적 해외시장 경영	• 동반자로서 신흥국 인식 • FTA를 통한 해외시장확대
인프라	지속가능성장 지원	• 무역금융·인력·전시·전자무역 선진화 • 무역안전망 구축

국민경제
기여도
제고

- 특히 농식품, 콘텐츠·SW 등 서비스, 소재·부품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수출을 집중 지원하고, 창의력·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수출과 고용 창출 등과의 선순환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
- 이와 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“2020년까지 무역규모 2조 달러, 세계 5~6위권의 무역대국 진입”이라는 비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
- * 수출비중 변화: 미래수출산업↑, 12대 주력품목↓, 중소중견기업 40%, 신흥시장 79%

1

무역환경 변화 트렌드

가

세계경제 중심축 이동 : 선진국 → 신흥국

- 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여력이 크게 약화된 선진국은 재정 위기에 직면한 EU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저성장 예상
- 경기부양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흥국은 중국 등 아시아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이전의 고성장에 근접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
- ☞ '20년 이전 중국은 미국경제 추월, 인도는 세계 10대 교역국 진입

나

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복잡화(Made in the World)

- ☐ 각국 기업들이 수출보다 해외생산 증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하면서 중간재 무역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추세
- * 중간재 무역이 증가되면서 수출제품은 다국적 제품으로 변화

다

시장확보를 위한 경제블록화 현상 심화

- ☐ FTA,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TPP), 아세안 협력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각축전이 본격 전개
- * FTA발효국간 무역의 세계무역 비중(%) : ('91) 17 → ('95) 29 → ('04) 40 → ('11.9) 48

라

급속한 기술 융복합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- ☐ 신기술 발달, 기술간 융합 등으로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융복합 기술과 와해성 혁신기술이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
- 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

(단위 : 억불)

구분	수출액		추진과제
	'10년 실적	↗ '20년 비전	
농식품	59	300	수출 전략품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 → 스타품목 육성
문 화 콘텐츠	32.3	223.5	킬러콘텐츠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, 금융·정책지원체계 확립 → 한류확산
바이오 헬스	38	425	- IT융합병원 등 개도국 겨냥 마케팅 - 글로벌 선도 고품질 상품개발
로 봇	2	70	- 해외 로봇시장 개척지원 - 글로벌 기술력 확보
나 노 융 합	-	1,000	- 글로벌 스타기업과 제품 육성 -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
디자인	0.4	2	- 중국, 동남아 등 신흥국 수출 모색 - 해외 디자인 거점 지속 확대
항 공	10	100	- 해외 선진업체와 공동개발 - 해외 파트너와 공동 마케팅
S W	13	50	- 처음부터 기업의 글로벌화에 초점 - 개방형, 네트워크형 해외진출 지원
그 린 에너지	110	2,020	(원전) 신규 원전 등 수주 전개,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강화 (신재생) 실증시험장 고도화, 인력 양성 강화, 보급 확대로 기업 육성 (스마트그리드) 對개도국 단품수출 → 對선진국 패키지화 수출

나

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- ◆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,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강화

- (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)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'20년까지 10만개 수출기업으로 육성(매년 1,300개)

* 수출중소기업 수 : ('08) 75,489개 → ('09) 77,989개 → ('10) 80,564개

< 수출기업 발굴·육성 지원 프로그램 >

수출역량강화사업	참여기업 지원한도 확대(매년 기업당 15 → 20백만원) * 수출 컨설팅, 홍보, 교육, 통번역 등 비용 지원
정부보조금 우대	무역촉진단 파견(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 보조금 10% 추가 지원) 해외규격인증 획득(수출 1백만불 이하 초보기업 보조금 20% 추가 지원)

- (글로벌 강소기업 육성) '20년까지 수출 5백만달러 목표 선도기업과 수출 5천만달러 목표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

- (수출 선도기업) 전력, IT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

* (전력) 발전 6개사 공동으로 전력 기자재 해외벤더등록 지원

* (IT) 글로벌 IT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「KOTRA IT 글로벌스타 100」추진

- (수출 강소기업) 기존의 일반적 마케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과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제공

* 해외시장 경영진단, 목표시장 분석 등을 통한 영업망 구축 인증, 현지 진출 지원 등

- (지원사업간 시너지 창출) 수출 선도기업 육성,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, World Class 300 프로젝트간 적극적 연계

* 글로벌 전문기업 클럽(2월 발족 예정)을 중심으로 동반진출,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

- (대중소 동반 진출 확대)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대기업 역량을 접목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력사업 지속

*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확대

* 한전, 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과의 선단형 해외동반진출 지원

* 대·중소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지원

다**소재 · 부품 글로벌 역량 배양**

◆ 글로벌 가치사슬 선도를 위한 소재 ·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R&D 주도형 기술확보와 개방형 기술혁신(M&A · 투자유치 등) 병행

□ (소재) 기업 규모, 기술개발 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*를 구축하고, '20년까지 소재 R&D 지원 비중**을 60%까지 확대

* WPM(세계시장 선점형), 전략적핵심소재R&D(세계시장 독과점형), 벤처형 전문소재R&D

** 소재R&D 지원비중(%) : ('11) 43.5 → ('12) 45.2 → ('20) 60.0

□ (부품) R&D사업의 전략성 · 사업성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과 신뢰성이 체화된 명품 부품을 개발

○ (SW융합) '20년까지 기계, 조선, 전기전자,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100대 핵심부품 개발

* '12년부터 신규과제로 매년 10개 부품을 지원(과제당 18억원/년, 최장 5년)

○ (신뢰성) 기술개발 단계별로 신뢰성 검증 프로세스를 개발 · 적용

* '12년 SW 융합형 부품개발사업에 시범도입하고, '13년부터 전분야로 확대

□ (글로벌 연계)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, 기술과 시장을 고려한 M&A · 투자유치 확대

○ (동반성장 R&BD) 국내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100대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, 글로벌 기업과의 맞춤형 비즈니스* 성사 지원

* 글로벌 SW기업과의 융복합 협력 장비-부품수요기업 3者 협력 공동 마케팅 협력 등

○ (투자) 선진기술 확보와 신시장 개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시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M&A · 투자유치 지원

* (매물탐색) 소재·부품 Value-Chain Map 구축, 국내 미흡기술과 전략기술 파악, 미흡기술보유·진출희망 지역 확보 기업 중 유망 매물 탐색 지원

** (자금지원) 일반 투자조합 및 부품·소재 M&A 펀드(3,000억원), 한·일 부품소재기업 상생펀드(2,000억원), 일본 테크놀러지펀드(300억원) 등 연계

라

주력수출산업 고도화

(단위 : 억불)

구분	수출액		추진과제
	'10년 실적	↔ '20년 비전	
조 선	491	1,300	- 에너지절감형 그린선박 개발 - 심해자원 개발용 해양플랜트 개발
자동차 및 부품	544	1,148	(단기) 친환경차 초기시장 창출 (장기)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
기 계	372	1,290	- 국산장비 활용 등 장비산업화 - 서비스 융합을 통한 수출 활성화 -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
반도체	507	1,223	-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장비 국산화 - 시스템반도체 설계인재 양성
디스플레이	326	500	-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- 핵심 부품·소재 국산화율 제고
휴대폰	276	600	- SW와 서비스 경쟁력 조기 확보 - HW 경쟁력 지속 강화
석 유 화 학	357	800	- 전략적 핵심 화학소재 개발 - 고부가 산업구조 전환
철 강	289	500	- 제품의 차별·고급·녹색화 - 판매전략 고도화
섬 유 패 셴	126	230	- 산업재편(가격기반 → 가치기반) - 브랜드력, 산업용섬유 기반 강화

1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신흥국

◆ 정부간 포괄적 산업협력을 바탕으로 'UAE' 원전수주와 같은 성공사례 창출하고, 무역인프라를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 재편

□ 인니, 베트남, 콜롬비아, UAE 등 주요 신흥국과 정부간 포괄적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

* (인니) 경협사무국('12년 가동)을 통한 경제개발 마스터플랜('11~'25) 협력 구체화

* (베트남) 원전·산업 등 쏠분야에 걸친 경제 협력 추진

□ 신흥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과 현장중심의 코트라 무역관 운영

* '20년 신흥시장 무역관 100개 확충('11년 77개) 및 선진국 무역관 효율화 추진 병행

□ 발전소, 석유화학 플랜트 등 프로젝트 수주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ODA(EDCF, KOICA) 활용과 민간부문의 ODA 참여 확대

* 개발원조(ODA) 계획(억불) : ('10) 12 → ('12) 14 → ('15) 30

2 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

◆ FTA의 외연 확장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(양적성장)와 既체결 FTA의 내실화·활용을 통한 성과 확대(질적성장) 전략 병행

□ (외연확대)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, 동북아국 FTA체결확대를 통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 대동맥 구축

* 세계의 생산거점이자 최근 거대소비시장으로 변환 중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기업의 현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-중 FTA체결 추진

□ (혜택확대) FTA의 적극적 활용지원 강화와 FTA혜택 확대

* 인도, 아세안 등과 양허개선, 아세안 국가(베트남, 인니 등)와 양자 FTA 확대 등

1 무역금융 역량 확충

◆ 무역금융 재원과 인프라 확충 등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, 신흥시장 진출,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지원 확대

- (선택과 집중) 중소기업 지원방식 다양화, 신흥시장 진출 확대,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등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역량 집중

< 수출기업 발굴·육성 지원 프로그램 >

지원방식	수은	대기업과의 동반진출(12년 1조원과 중소중견 히든챔피언 기업 지원 확대
	무보	중소기업 지원 확대(조원) : ('11) 19 → ('15) 32 → ('20) 50
신흥시장	무보	(1단계) 신흥국 경제기반 구축 지원 → (2단계) 포괄적 경제협력
프로젝트 수주지원	수은	他 ECA, 상업은행들과 공동사업·융자, 금융자문과 주선 확대
	무보	중대형 프로젝트 지원 확대(조원) : ('11) 14 → ('15) 33 → ('20) 50

- (역량 강화) 지원여력 확충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
* 무역보험 기금 목표배수 : ('11.10) 79.6배 → ('15 ~ '20) 50배 내외

2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

- 해외활동경험 보유 청년들의 해외인턴사업 참여 확대와 FTA 전문인력·환리스크 관리 등 특정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지원

3 무역전시의 허브 구축

-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국가브랜드 전시회와 전시장 육성과 KINTEX를 세계적 수준의 한국 전시산업 Hub로 개발

4 One-Stop Smart 전자무역서비스 실현

- 언제 어디서나 IT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절 없는 전자 무역서비스 완성

5 FTA 확대에 따른 실효적 무역안전망 구축

- 무역구제제도를 통한 산업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개별기업 차원의 경영안정 동시지원